

“시민·지역 동반성장...복합문화공간 자리매김”

●‘취임 2주년’ 최진수 목포시립도서관장

공모사업 선정 재정 확보, 가족·청년층 방문 증가 등 결실 ‘머물고 싶은 도서관’ 비전 발표...이용자 맞춤형 공간 조성도

“독서와 문화가 공존하는 ‘가고 싶은 도서관, 머물고 싶은 도서관’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최진수(사진) 목포시립도서관장은 최근 독서 문화 진흥, 지역사회를 위한 도서관 혁신 성과 공유, ‘책 읽는 목포,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머물고 싶은 도서관’을 강조하며 2025년 비전을 발표했다.

20일 목포시립도서관 등에 따르면 최 관장은 목포시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문화라운지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 3층 로비를 예술품 전시와 작은 음악회, 강연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해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소모임실, 창의공간 등 이용자 맞춤형 다목적 공간을 배치해 자유롭게 책을 읽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지역 관계기관, 서점, 출판사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직장문고 설치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확대하며 목포도서관축제를 강연 및 공연, 대회, 독서와 관련된 행사로 운영할 계획이다.

최 관장은 지난 2년간의 주요 성과도 공유했다.

첫째 도서관 공간을 독서, 문화, 휴식,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 최적의 환경으로 리모델링해 시민 이용률을 향상시켰으며, 가족 단위와 청년층 방문객이 크게 늘었다.

둘째 독서 문화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다.

세대와 관심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독서 동아리를 조직하고 활동을 지원해 시민 참여를 유도



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인문학 강좌, 청년·신진 작가 전시회를 매월 개최했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프로그램을 도

입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다. 저서력자와 고령자를 위한 큰 글자책을 비치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다문화가족과 지역 아동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독서·IT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넷째 유관기관(하나노인복지관, 목포시가족센터, 목포국제체육센터)과 협력해 직장문고를 개설했으며, 도서 확충을 위해 시공사로부터 3천권을 기증받아 그중 일부를 재기증해 취약계층 독서 문화 진흥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도서관융합서비스를 확대했다.

다섯째 정부와 전남도 주관 공모사업에 총 10건이 선정돼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 지역 주민을 위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 참여와 문화향유 기회를 확장했다.

최진수 관장은 “목포시립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닌 시민과 지역사회가 만나고 성장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지식을 배우고 문화를 공유하며, 나아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서의 도서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전남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전남도와 전남남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일 도청 왕인실에서 시·군,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어 아동학대 없는 사회 실현을 다짐했다.

행사는 원장 이주림 화백의 붓글씨를 통한 개회 선언,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의 격려사,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회복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17명 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아동학대 예방의 날 공익광고 영상 시청, 아동학대 제로를 향한 다짐으로 태권도 격파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건강한 가정 양육을 위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양육’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이은민 문성중 교사, 독서지도 우수 ‘광주매일신문 표창’

이은민(사진 오른쪽) 광주 문성중 교사가 20일 광주매일신문이 주최한 제11회 무등산문학백일장 대회 지도 및 수상 실적 공로를 인정받아 ‘독서지도 우수교사 표창’을 받았다.

이 교사는 매년 광주매일신문이 주최하는 무등산백일장 대회 지도를 맡아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독서와 글쓰기를 독려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작가와와의 만남’ 프로그램을 기획해 다양한 작가들의 특강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들의 문화적 시각을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지난 8월에는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학문후속세대 포스터 발표 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는 등 질 좋은 문학 수업을 개발하고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이은민 교사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주어진 주제에 맞게 깊이 있는 사고와 창의적 표현을 바탕으로 글을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전남도의회, 적십자 광주전남지사에 800만원 기탁

전남도의회는 20일 “지난 9월 집중호우가 발생한 장흥·강진·해남·영암 등 호우 피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구호금 8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에는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을 비롯한 이광일·이철 부의장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원왕희 사무처장, 이준형 나눔기획팀장

이 참석했다.

전남도의회 기탁금은 적십자 광주전남지사에서 호우 피해 지역의 생활 안정을 위한 물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태균 의회 의장은 “기탁금이 호우 피해로 인한 도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키우리, 김연성 한국경영학회 회장 초청 산학협동포럼

㈜한국산학협동연구원(키우리, 이사장 김보근·원장 양승학)은 20일 오전 광주 동구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A홀에서 회원 및 광주·전남지역 학계 기관·단체 대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59회 산학협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김연성 한국경영학회 회장은 ‘ESG 경영, 디지털 전환기에 품질이란 슬래집기’란 주제로 강연해 큰 호응을 얻었다.

키우리는 포럼에 앞서 조선훈 기후위기대응 융합인재양성사업단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정은솔기자



광주시곰두리봉사회, 무료 장수사진 촬영 봉사

㈜광주시곰두리봉사회(회장 박용구)·(사)광주시사회복지심부름지원센터는 최근 광주 남구 월산동 신우신협 대강당에서 관내 어르신 3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은 호남대 뷰티미용학과 전·현직 교수와 학생들 그리고 화이트룸 스튜디오(대표 최중화)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봉사활동을 주관한 박용구 회장은 50여년 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인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꾸준히 지원 및 봉사를 왔다.

이번 장수사진 촬영에서도 곰두리봉사회 차량과 사회복지심부름지원센터 차량 20여대를 투입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을 도왔다.

박 회장은 “장수사진을 찍으면 장수한다는 말처럼 어르신들이 장수사진을 찍고 장수하시길 바란다”며 “사진을 찍게 돼 다행이라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으니 이번 활동을 추진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담양공고 동문 골프동호회, 장학금 300만원 모교 전달

담양공업고등학교는 20일 “졸업생들이 모교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학금은 졸업생들로 구성된 골프동호회에서 상하화목장학회를 조성해 기부한 금액으로 마련됐다. 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추천을 통해 선정된 1·2학년 6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전달됐다.

골프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 6회 졸업생 이병철 동문은 “회원들이 십시일반 회비를 모아 장학금을 기탁했다”며 “작은 금액이지만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박은희 교장은 “이번 장학금이 후배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담양=정승균기자



‘광주교육의 현장, 감동의 기록’ 사진전 광주전남사진기자회(회장 김진수)가 주관한 ‘광주교육의 현장, 감동의 기록’ 사진전이 20일 광주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문화공간에서 개막된 가운데 시민들이 전시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해당 작품은 한 해 동안 광주교육 현장에서 사진기자의 시선으로 담아낸 기록물들이며 전시회는 오는 29일까지 이어진다. <광주전남사진기자회 제공>



동신대 메이커스페이스사업단 ‘중기부장관상’

동신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사업단은 20일 “전날 부산에서 열린 2024 창업인프라 통합 성과보고회에서 메이커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동신대 메이커스페이스사업단은 메이커스페이스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메이커 문화 확산과 제조 창업 활성화에 힘쓴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신에너지 창업 활성화 기업 지원을 통한 기술 선진 및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에너지 신산업 분야 전문 메이커 육성에 기여한 점에서 호평받았다. /김다이기자



목포가톨릭대 뜨개동아리 ‘따숨’ 전남서부권아동보호기관에 목도리 후원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최근 목포가톨릭대학교 뜨개동아리 ‘따숨’과 함께하는 학대피해아동 겨울나기 후원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목포가톨릭대 학생들과 동아리 ‘따숨’은 겨울철을 맞아 학대피해아동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고자 손수 뜨개질한 목도리를 준비했으며, 후원물품은 학대피해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임광목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동아리 회원들의 정성 어린 손길이 담긴 목도리가 아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유 ‘따숨’ 동아리 회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목포=정해선기자

결혼

▲김승수·최춘자씨 아들 인찬군, 박태희(대성정밀 대표)·정선숙씨 딸 보람양=23일(토) 낮 12시 광주 북구 동문대로 287 까사디루체웨딩컨벤션 3층 안젤로홀. (062) 710-4000, 010-9190-1866.

▲이준·박인숙씨 장남 은식군, 이용희·이선영씨 장녀 예은양=24일(일) 낮 12시 광주 광산구 인방울대로 549(도천동 147-29) 드메르웨딩홀 2층 베일리홀. (062) 228-0000, 010-3647-9902.